

# 포기는 없다... 세월호 미수습자 3차 수중수색

### 양승진 교사 등 5명 찾기

### 내달 중순까지 3주간

### 조은화·허다운양 목포 떠나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정부가 침몰해역에 대한 '3차 수중수색'을 시작한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42일간의 '2차 수중수색'을 마치고 22일부터 '3차 수중수색'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수습본부는 세월호 침몰해역 지점에 설치된 펜스가 조류의 흐름을 막아 퇴적현상 발생함에 따라 직각으로 설치된 길이 200m의 남·북측 펜스 아래와 펜스 인근에 쌓인 토사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작업방식은 잠수사가 침몰해역으로 들어가 펜스 주변에 쌓인 50cm의 토사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과 해저면의 토사를 퍼올려 작업선에서 진흙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될 3차 수중수색은 지난달 19일 수중수색 작업중에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유해 2점이 발견되는 등 미수습자가족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가 수색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수습본부는 3차 수중수색을 결정했다.

3차 수중수색은 다음달 중순까지 2~3주간 진행할 계획이다. 날씨 등 현장상황에 따라 작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조은화·허다운양의 이별식이 지난 23일 서울서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제 편히 쉬렴” 세월호 안에서 3년 만에 수습된 단원고 조은화·허다운양의 유골이 지난 23일 목포신항을 떠나 서울로 옮겨졌다. 유족들이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서 조은화양의 관과 영정사진을 운구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10일 수습된 조은화 양과 5월 14일 수습된 허다운양의 유골은 그동안 차가운 목포 신항 냉동 안치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허다운(10월1일)양과 조은화(10월7일)양의 생일을 목포 신항 냉동 안치실에서 보낼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많은 고민 끝에 가족들은 아직 미수습자가 남은 상황에서 미수습자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과 먼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그동안 함께 한 시민들에게 마지막 가는 길을 인사하는 의미에서 간소한 이별식을 열기로 했다.

25일 은화양과 다운양은 단원고로 옮겨져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수원시립연화장에서 화장이 진행되며 끝으로 세월호 단원고 친구들이 있는 평택시 서호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단원고 고창석 교사, 단원고 조은화·허다운 양, 이영숙 씨 등 4명이 가

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남아있는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민군, 단원고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한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20일부터 4주간 세월호 기관실에 대한 수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수색 구역의 면적은 192m(58편) 정도로 알려졌으며 소형선 등을 이용해 내부 진흙을 수거해 분리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전두환도 5·18 피해자” 지역 MBC 사장 발언 파문

### “북한군 개입설은 팩트” 지난 5월 식사자리서 주장

### 오월단체·도청 복원위 항의 방문...MBC 사장 “취재 불응”

공영방송인 지역 MBC 사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은 팩트'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5·18구속부상자회,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역의 MBC 대표이사인 A사장이 올해 5월 하순께 회사 관계자와 식사 자리에서 '전두환 회고록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전두환 입장에서 본 5·18 기록도 인정받아야 하고, 북한군 개입설은 팩트'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사장이 '이순자 회고록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세간 평가에 비해 관중

은 사람 같다'며 전두환 부부 회고록 읽기를 회사 관계자에게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A사장의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밝힌 37주년 5·18기념식에서 1주일가량 지난 시기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5·18 단체와 옛 도청 복원 대책위는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A 사장 발언을 전해 듣고 오는 25일 오전 10시 해당 MBC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은 “회고록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것은 5·18 역사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왜곡한 전두환 주장에 동조한다는 뜻”이라며 “A 사장은 공

영방송 경영진은커녕 언론인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A사장은 발언 진위나 취지를 묻는 언론사 기자에게 “어떤 언론 취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두환 회고록은 올해 4월 출간해 '나는 광주시대 씻김굿의 제물' 등 표현으로 5·18 당사자 반발을 사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5·18단체와 유가족은 회고록 3권 가운데 1권 혼돈의 시대에 등장하는 '북한군 개입' 등 33곳의 내용이 역사를 왜곡하고 당사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5·18단체와 유가족이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전두환 측이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연합뉴스

## 국정교과서 조사위 출범

### 위원장에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교육부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정기회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위원장은 고석규 전 목포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학계와 중·고교 교원,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연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도 발간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여론과 상관없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추진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조사위를 꾸려 '셀프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2 해질 18:25  
달출 10:51 달짐 21:41

오전까지 미세먼지  
북한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았다.

◇지역별 날씨(°C)	
광주	구름많음 20/28
목포	구름많음 19/27
여수	구름많음 21/26
나주	구름많음 18/28
완도	구름많음 19/27
구례	구름많음 16/27
강진	구름많음 18/27
해남	구름많음 16/27
장성	구름많음 17/27
보성	구름많음 16/25
순천	구름많음 19/28
영광	구름많음 18/28
진도	구름많음 19/27
군산	구름많음 18/27
남원	구름많음 16/28
축산도	구름많음 18/24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북동~동풍 0.5
남해 앞바다	북동~동풍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풍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풍 1.0~1.5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파부질현

◇물때	
간조	만조
10:11	05:03
22:36	17:35
05:20	11:51
17:52	23:50

◇주간 날씨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10/1(일)	2(월)
19/28	20/26	17/26	13/24	14/25	13/24	13/23

##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 광주·전남 경찰 내달까지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이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터미널 등 주요 혼잡구역에 대해서는 '소통·계도 중심'의 특별 교통 관리 대책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은 서민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전통시장 5개소 주변에 대해 25일부터 10월 31일 까지 37일간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전남청도 같은 기간 목포 자유시장 등 도내 2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은 전통시장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석 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9월28~10월31일) 기간에 맞춰 실시된다.

경찰은 특히 주차허용 구간내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추석명절 기간 동안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등을 총동원해 터미널 주변 등 교통혼잡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소통·계도 중심'의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 내에 헬기와 양행순찰차를 동원해 끼어들기 갓길 운행과 같은 안전운전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배웅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평소보다 이용객 30.5%, 매출액 2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표기자 lucky@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NAVER · 정음 구절초 축제 검색

네비게이션 주소 : 전북 정읍시 산내면 배죽리 571

## 제12회 정음 구절초 축제

가을의 서정시를 쓰다!  
'솔숲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제12회 정음구절초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옥빛 물결 아름다운 옥정호  
푸른 호수 위에 피어나는 물안개...  
그 몽환적 풍경을 배경으로  
연보랏빛 은은한 구절초와 짙은 솔황이 어우러져  
가을의 서정을 노래하는 그 곳, 구절초테마공원!

올해도 이곳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가을향연이 펼쳐집니다.

'솔숲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제12회 정음구절초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최 정읍시 주관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문의전화 063)539-6171~3